



# 빛의사람들

2018.7.

275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19-20)



## 우리들의 활동 이야기



### 5월 후원회원 영성피정과 월레미사

지난 5월 14일(월)에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는 월레미사에 앞서 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상원 사도요한 신부님께서 진행한 이번 피정에서 “물질적인 풍요의 안락함을 추구하며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정사목의 3명의 신부님께서 공동으로 집전하신 후원회원 월레미사에서 강봉묵 마티아 신부님께서 “갈렘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러세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사랑’ 때문이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움이 많지만, 기도 안에서 하

나씩 실천한다면 그 큰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 버겁고 힘겨울 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축일을 맞이하신 강봉묵 신부님을 위하여 각 교정시설의 대표봉사자들과 모두가 축가를 부르며 은총이 가득했던 성모성월의 월레미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 서울구치소 여사 세례식

5월 29일(화)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님께서 봉헌하신 서울구치소 여사 미사 안에서 자매님 1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현대일 신부님께서 “우리의 빵이 되어 오신 주님의 큰 사랑에 보답하며, 오늘 세례를 받는 자매와, 우리 모두가 이웃의 빵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날 세례를 받으신 자매님이 이웃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사랑의 빵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위촉 및 표창장 수여식

5월 29일(화) 서울구치소 청사 3층에서 서울구치소 각 종교교정위원과 다른 전문 교정위원들이 모여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정기총회에서 신규교정 위촉식과 표창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교정위원으로 7명의 봉사자분께서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서울구치소 남사 봉사자 김옥기 소피아 자매님께서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축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 6월 후원회원 월레미사

6월 후원회원 월레미사가 6월 4일(월)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봉헌되었습니다. 이날 미사에서 현대일 신부님께서 “오늘 복음말씀(마태 26,31-46)에서 소작인들은 참 주인을 몰라보는 우를 범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을 몰라보고 있지 않은가

에 대해서 반성해보아야겠다. 우리는 돈과 권력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지, 가난한 이, 고통받는 이, 감옥에 갇힌 이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지 반성해야겠다”고 강론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 간혀있는 아이들의 얼굴

강봉묵 마티아 /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 신부

고온다습한 날씨가 가만히 있어도 손부채질을 부추기는 7월에 영육 간에 건강히 지내시고 계시는지요?  
저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서울고봉중고등학교(소년원)의 천주교반 담당인 살레시오 수도회의 강봉묵 마티아 신부입니다. 서울 소년원과 분류심사원 담당 소임은 작년부터 수행해오고 있었지만, 소식지를 통해서서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정사목의 모든 식구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힘이 되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수도회에 입회해서 지금껏 살아오면서 십수 년 간 소년원과 분류심사원에서 만나왔던 가난한 청소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탕 한 개, 치킨 한 조각에 울고 웃는 아이들의 얼굴, 밖에 날씨가 너무 좋으면 창밖을 바라보며 담장 너머 사회에서 놀고 있을 친구들 생각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의 얼굴, 신나게 목에 핏대를 세우며 좋아하는 성가를 부르는 아이들의 얼굴, 일주일 만에 만나 상대방의 안부보다 간식이 치킨인지 물어보는 소년원 아이들의 장난기 가득한 얼굴, 소년원 퇴원심사에 떨어져 우울해하는 얼굴, 미사 때 성체를 모시고 철없이 장난치던 소년원 아이들의 얼굴, 일주일 동안 기다렸던 좋아하는 엄마(봉사자)를 찾는 소년원 아이들의 얼굴, 간식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인심 쓰듯 간식을 집어 나에게 건네는 아이의 얼굴, 집회를 마치고 나가면서 손흔들어 작별인사를 하는 나를 보며 착잡한 웃음으로 답하는 아이들의 얼굴, 자신의 험난한 인생 여정을 덤덤하게 이야기하던 분류 심사원에서 만난 여학생의 얼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던 분류 심사원의 한 여학생의 얼굴, 분류 심사원에서 나가면 꼭 신자가 되고 싶다고 수줍은 미소를 보이며 약속했던 한 여학생의 해맑은 얼굴, 다시는 여기(분류심사원, 소년원)에 다시 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아이들의 얼굴, 봉사자 선생님께 등 떠밀려 고해를 하려 못 이기는 척 걸어오지만 이내 진솔하게 죄를 고백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간혀 지내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각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꽃망울도 터지지 않는 아이들 각자의 인생에 꽃이 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봉사자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뿌릴 따름입니다. 어떤 아이의 마음의 밭에는 돌과 자갈이, 어떤 아이의 마음의 밭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착한 농부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름과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받기에 충분(돈보스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성숙과 죄가 우리를 통해 베풀어지는 하느님 사랑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목말라하며 간혀 있는 가난한 청소년들이 이 사회로부터 혹은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랑에 힘입어 악(惡)을 미워하고 선(善)을 사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후원회원님과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



## 셈과 야벳 그리고 함

현대일 루도비코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신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 나갔다.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겹옷을 집어 들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 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창세 9, 18-23)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느꼈을 감정은 무엇이였을까요? 그 큰 재앙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대한 고마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친구 친척 그리고 이웃들의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정든 집과 그동안 힘들게 일구어 놓은 밭, 고향이 사라졌습니다. 홍수전에 함께 했던 이들과의 관계는 모두 끊어졌고,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로움, 상실감,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켰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노아에게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정신과에서 흔히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혹은 트라우마가 노아에게는 없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노아의 부끄러운 실수를 정당화시켜주진 않습니다. 물론 이 어려움을 솔로 이겨낼 요량으로 포도를 가꾸기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수를 구하기 힘든 지형적 특성 때문에 식수 대신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를 제주(祭酒)로 이용하였기에, 포도를 가꾼다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딛고 삶을 꾸려나가려는 노아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한 어려움에도 제사를 통해 하느님과 대화를 계속 이어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명 실수를 하였습니다. 알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단지 부끄러움과 놀림의 대상만이 아니라, 성서 속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품위를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방주에서 노아와 함께 살아남은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였을까요? 모든 아이에게 부모님은 롤 모델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멋지고 강한 존재, 기둥입니다. 더욱이 노아는 하느님께 뽑혀 홀로 그 험난한 세상 종말을 겪고, 이겨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그런 노아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들 역시 친구들과의 분리와 죽음, 자신들이 지내며 놀던 터전을 잃었습니다. 또한 홀로 방주를 만들면서 주변으로부터의 아버지 흉이나 뒷담화를 들었는지도, 아니 아버지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원망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들은 성장하면서 강해지고, 그리고 아버지는 약해집니다. 아버지의 모순과 약점을 발견합니다. 술에 취해 과거의 고난이나, 그 고난을 이겨낸 성공신화를 반복하여 읊어대는 아버지 세대는 이제 고리타분하고,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퇴물로 여겨집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 비극이나 고독, 상실감, 혹독한 생존경쟁으로 생긴 그 트라우마는 이제 공감받지 못하고, 무시됩니다. 셈과 함, 야벳, 이 세 형제가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 노아를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다른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아버지의 모순과 약점, 한없이 약하기만 한 내면, 개인사의 비밀, 아픔을 발견하고, 관찰하여 퍼트립니다. 눈으로 그 잘못, 실수를 들추며 파헤치고, 입으로 그 허물을 떠벌입니다. 눈으로 얹보고 입으로 비아냥, 빈정거림으로, 상대방을 낮추고, 짐짓 자신은 더 옳고 뛰어나다는 우월감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자기 주도권을 갖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박함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혹이나 눈으로라도 죄를 지을까, 수치를 최대한 보지 않으려 뒷걸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알몸을 덮어 드립니다. 이 덮는다는 히브리어는, 보호해주기 위해서 덮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보지 않고, 말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가려주고 오히려 보호해줍니다. 셈과 야벳은 어쩌면 자신들도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목같이 크고 웅장하기만 한 줄 알았던 의인이신 줄 알았지만, 그 쓸쓸함과 어려움, 혼자서 버텨내기 힘든 그 무게에 비틀거림을 이제는 공감하기에,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주고,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공감(共感).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성서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알려야 할 언론인, 정확히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 판단해야 할 사법기관의 지도서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서는 하느님 시선 앞에 놓인 신앙인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 품 안에 놓인 인간 서로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앞서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와 벌, 그리고 하느님의 자비, 그리고 하느님 눈에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셈과 함, 야벳 형제의 일화를 통해, 인간관계 속에서 부족해 보이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한 단초를 던져줍니다.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공감한다면, 어찌 함부로 상대방의 약점을 떠벌릴 수 있겠습니까? 수용자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교정 봉사자,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의 약점이 자꾸 눈에 띄는 수용자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 모두와 함께하는 저에게도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요한 8,7) ■



## 기쁨과희망은행 창립 10주년

출소자의 '기쁨' 수용자의 '희망'

김일호 미카엘 / 기쁨과희망은행 본부장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살해 피해 사건의 충격으로 일자리조차 찾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기쁨과희망은행'이 2008년 6월 25일 창립되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은 출소자나 살해 피해자 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자금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고 창업을 지원하는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6월 25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 위원장 이영우 신부님과故김기섭 후원회장님의 도움으로 창립하여 올해 10년이 되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도 취업이 어렵고 먹고살기 위해 재범을 저지르는 전과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재범을 줄이는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출소자에게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출소자들에게 창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창업 교육, 대출지원, 사후관리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지원으로 기회를 얻은 대출자들은 다른 출소자의 재범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종교기관인 기쁨과희망은행은 재범률을 감소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0주년인 2018년 5월 현재 1기~18기 까지 18번의 창업교육을 진행하여 수료자 365명과 204명(창업지원 189명, 피해자 지원 4명, 자활 지원 11명)의 대출자에게 총 3,491백만원의 창업대출금을 지원하였고 2018년 5월부터 19번째 창업교육을 시작하여 현재 23명의 출소자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자들이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세금체납과 복역으로 인한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길고 가족 및 지인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출소자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반인 창업자들과 창업현장에서 처절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1호 완납자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현재 15명의 완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완납한 대출자들의 공통점은 성실함과 인내심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급한 마음을 버리고 열정과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인내심으로 자기 자신과 시간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성실함과 인내심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영우 신부님, 김성은 신부님, 김지영 신부님, 김석원 신부님이 은행장으로 함께 해주셨고 여러 부위원장 신부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신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후원회원, 운영위원, 창업대출자, 함께했던 직원,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출소자들에게 기쁨을 수용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 희망의 사다리



이만호 (前 교도관) / 법무부 정책홍보 블로그 기자

2018년 6월 4일 19시경에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 김일호 본부장, 모세종 운영위원과 함께 전주를 방문해서 9년의 수형 생활을 마친 후 세탁소 창업에 성공한 박 모 씨를 만났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어서 김일호 본부장님으로부터 단체에 대해 소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소자 자활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약 34억 원을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출소자들을 선정해서 200여 명에게 대출해 주었는데, 그중 15명만이 지원한 창업자금을 모두 갚고 나머지는 상환 중이거나 아예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 된 상태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대상자를 선발할 때도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납자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처럼 출소자의 자활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맨주먹으로 사회에 나가게 된 출소자는 어떻겠습니까?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0년이 넘는 교도소 생활을 한 장발장처럼 먹고 살길이 없기에 대부분 범죄의 늪에서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9년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박모 출소자는 세탁소 창업 후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일하는 생활을 6년간이나 계속했습니다.

24시간을 세탁소 귀통이에 야전침대를 놓고 끼니때면 라면을 끓여 먹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상태에서도 오직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 5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빌딩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속된말로 조물주 위에 빌딩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빌딩주가 되어 200여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은행 대출금은 있지만, 충분히 잘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이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되어 오는 6월 24일 창립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창립행사의 목적으로 창업에 성공한 출소자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교도관으로서 생활하면서 느낀 소감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소액대출을 통해 많은 힘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준 그라민 은행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기쁨과희망은행이 더욱 성장 발전해서 출소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주었으면 하고 기대해 봅니다. 🍷



## 착한 아이

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홍보부



〈십자가 수난 예수님을 위로하는 아이〉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재현한 행렬에서 예수님 뒤로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윽고 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다그치며 채찍으로 거세게 땅을 내려치고, 예수님 뒤를 따르던 아이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쓰다듬으며 상처받았을 예수님을 위로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은 지난 3월 30일에 멕시코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로마에서 또 다른 어린이를 만나보겠습니다. 본당을 사목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자리에서 즉석 문답 교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이가 마이크 앞에 서서 질문을 하려고 하지만 무슨 일인지 머뭇거리다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에게 말 못 할 고민이 있음을 직감하신 교황님은 겹으로 불러 귓속말로 고민을 말하도록 합니다. 이후 교황님께서 아이에게 동의를 얻고 공개한 고민은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형제) 모두 세례를 받게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아빠가 천국에 가셨을까요?”라는 아름다운 내용이었습니 다. 교황님께서서는, 하느님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고 분명 아빠를 멀리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가득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러한 사랑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이런 순수함을 바보 같고, 쓸모없는 것, 생산적이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어른들의 사정(事情)’에 의해 결정되는 철저한 손익계산과 이해관계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손익을 따져보고 이익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고, 때로는 이익 때문에 기본적인 가치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또 순수한 사랑에서 우리나라와서 하는 행동에도 뒤에 숨어있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고, 실제로도 선의에 다른 목적을 숨기기도 하는 각박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 14)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순수의 종말에 대해 경고하셨고, 앞서 만나본 두 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랑을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나본 어린이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른들의 사정(事情)’에 의해 행동하기보다 순수한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교황님〉

※ 참고자료

김원철 기자, 「십자가 예수님 위로하는 다운증후군 소년」, 2018. 04. 15, 가톨릭평화신문

신익준 기자, 「어린이 끌어안은 교황, 무슨 얘기 나눴을까?」, 2018. 04. 18, cpbc 가톨릭평화방송





성모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그림으로 봉헌한 자매님에게  
성모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2017. 12. 10. (B) PM 1: 53 # 2017 福

성모성월에 성모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을 그림으로 봉헌한 자매님에게 성모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나를 키우는 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음  
달

(6)

양상우  
도로테아

내가 세상 끝 날까지  
-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었다 -





# 후원알림마당

##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 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합의한 협약으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 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

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절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2018년 8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8월 6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8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5/16~6/11)

5월~6월에는 박명수 세레나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행사 알림

- 7월 각 교정시설 세례식 및 방학식
- 7월 2일(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7월 12일(목) 해밀(피해자)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7월 14일(토)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야유회 / 파주
- 7월 18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회의 / 교정사목센터
- 7월 30일(월)~8월 1일(수)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3기 집중인성교육 / 서울남부구치소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SC 제일은행 계좌 해지 안내

SC제일은행(109-10-276339) 후원계좌를 해지합니다. SC제일은행(자동이체)으로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사업부: 02-921-5094)

## 후원신청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